

막바지 향하는 K리그 ‘뒷심 최강자’ 경쟁

전북, 최근 5시즌 마지막 4경기 평균 승점 7.4로 1위 대구·인천 상위권… 제주와 경남은 인천보다 낮아

2019시즌 프로축구 K리그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팀별로 남은 경기는 4경기뿐이다.

순위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다. 1위 울산 현대(승점 72)와 2위 전북 현대(승점 71)는 우승 트로피를 두고 승점 1차 박빙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걸린 3위를 노리는 FC서울(승점 54), 대구 FC(승점

50), 강원 FC(승점 49), 포항 스틸러스(승점 48)의 싸움도 혼전 양상이다. 강등을 피하려는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29), 경남 FC(승점 28),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23)의 순위경쟁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막판 뒷심’이 절실한 시기다. 프로축구연맹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K리그1 12개 구단의 최근 5시즌 마지막 4경기 평균 승점을 발

표했다. 전체 1위는 평균 승점 7.4를 기록한 전북이 차지했다. 매 시즌 상위권에 머물렀던 팀답게 시즌 막바지에도 꾸준히 높은 승점을 쌓았다. 반면 울산의 뒷심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5시즌 평균 승점은 5.8점으로 하위권이었다.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처져 있는 전북이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다. 전북 다음으로는 대구가 7점의 평균 승점을 기록해 2위에 올랐다. 남은 4경기를 치를 팀들과 올 시즌 상대 전적도 5승 3무 4패로 좋은 상황. 충분히 3위 탈환을 노려볼 만

하다. 인천은 ‘생존왕’이라는 별명답게 리그 후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시즌 간 마지막 4경기에서 평균 6.8의 승점을 수확해 전체 3위에 올랐다. 이번 시즌에도 중반까지 줄곧 최하위를 전전하던 인천은 후반 들어 매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반전에 성공했다. 19일 성남 FC전 1-0 승리를 포함해 5경기 무패 행진(2승 3무)을 이어나가 순위를 10위까지 끌어올렸다. 강등권인 제주, 경남의 5시즌 마지막 4경기 평균 승점은 각각 6.2, 4.4로 인천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전국 장수파크골프대회 개최 22일 제주시 회천생활체육공원에서 42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장수파크골프대회가 열렸다.

손흥민, 발롱도르 30인 후보 설기현·박지성 이어 세번째

손흥민(27·토트넘)이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인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명에 이름을 올렸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22일(한국 시간) 올해의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손흥민은 피르힐 판데이크(리버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세르히오 아녜로(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손흥민은 소속 팀 토트넘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맨체스터 시티와 치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1·2차전 합계 3골을 몰아치며 팀을 4강으로 이끌었고, 대어를 잡은 토트넘은 준결승을 넘어 창단 첫 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도 해리 케인(17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2골을 기록해 팀을 4위에 올려놨다. 토트넘이 부진한 이번 시즌에도 그는 리그 2골, 챔피언스리그 1골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손흥민이 세 번째다. 손흥민에 앞서 벨기에 리그의 안드레흐트에서 뛰었던 설기현이 200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이 2005년에 한 차례씩 포함됐다. 당시 후보는 50명이었고, 설기현과 박지성은 투표에서 표를 얻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한국시리즈 그라운드예 선 소망관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키움 히어로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에서 고성산을 당시 1차 출동대로 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조의 공을 세운 임재석 소망장과 권하소 소망교가 시구·시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맥스 셔저 vs 게릿 콜 ‘에이스의 전쟁’

오늘 MLB 월드시리즈 개막 워싱턴-휴스턴 1차전 맞대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강팀을 가리는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가 23일(한국시간) 시작한다. 내셔널리그 챔피언 워싱턴 내셔널스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오전 9시 8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WS 1차전을 치른다. 양 팀 모두 에이스를 선발로 내세

운다. 워싱턴은 맥스 셔저(35), 휴스턴은 게릿콜(29)이 출격한다. 셔저는 2013년과 2016년 사이영상을 거머쥔 명실상부한 워싱턴 에이스다. 콜은 올 시즌 20승 5패 평균자책점 2.50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객관적인 전력은 휴스턴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스턴은 정규시즌에서 107승 55패를 기록하며 30개 구단 중 승률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워싱턴은 정규시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2위에 그쳤다. 그러나 워싱턴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밀워키 브루어스를 잡은 뒤 포스트시즌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등 강팀들을 격파하며 분위기를 뒀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팀 휴스턴은 콜-저스틴 발렌타인 원투 펀치에 지난 8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뛰던 잭 그레인키까지 영입해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발 라인업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LPGA투어 ‘신데렐라’ 전통 이어지나

내일 BMW 챔피언십 개막 고진영·이정은 동반 출격 국내파 선수 46명도 ‘주목’

한국 땅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이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파72)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투어 대회다. 작년까지 17차례 치러진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이 없어진 대신 올해 창설됐다. 대회 이름, 장소, 주최하는 타이틀 스폰서가 모두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건 세계 여자 골프 최강국 한국 땅에서 열린다는 사실이다.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열린 17차례 LPGA투어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11번이나 우승했다.

2017년 고진영(24), 지난해 전인지(25)가 우승했으니 올해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오르면 3년 연속 한국인 챔피언 탄생이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워낙 많은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 출전 선수 8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명이 한국 국적이다. 교포 선수까지 합치면 50명에 이른다. 세계랭킹 1위이자 삼급, 올해의 선수, 평균타수 등 개인 타이틀 전 부문에서 1위를 달리는 고진영과 신인왕을 일찌감치 확정할 세계랭킹 3위 이정은(23)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작년까지 17차례 한국 땅에서 열린 LPGA투어 대회에서 LPGA투어 비회원인 한국 선수 5명이 우승해 LPGA 투어에 적응했다. 이번 대회에는 종전 12명보다 더 늘어난 30명의 국내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가 신데렐라 탄생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연합뉴스

‘박세리 브랜드’ 키운다 박세리, 스포츠 전문회사 설립

한국 여자골프의 상징 박세리(42) 2020년 도쿄올림픽대표팀 감독은 ‘박세리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키움 회사를 설립했다. 박세리는 골프 선수와 감독으로 쌓은 경험을 통해 골프 관련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 스포츠 전문 회사 바즈인

터내셔널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바즈인터내셔널은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레전드 매치, 세계주니어 골프대회 등 ‘박세리 브랜드’를 활용한 골프 대회 개최와 박세리 재단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 선수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바즈인터내셔널 경영 총괄대표는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 아시아 국제 스카우트인 이지훈 씨가 맡았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란 물어보세요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플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동백꽃 필 무렵(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콩파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정보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애니컬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2 스페셜 11:45 헬로키티 유니버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동맹 유치원 9:15 마샤와 곰 10:00 자식의 기쁨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가 놀리 15:55 출동! 슈퍼윙스 16:40 딤동맹 유치원 17:20 그림을 그려요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너하니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마틸다사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13: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4:00 KBS 뉴스 14:10 남북의 창(재) 14:50 2019 전국 초등 축구 리그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 17:30 동물의 왕국	1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이란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플 샐러드(재) 17:00 반지의 비련일기 2 17:15 뽀니 내 친구는 빅파이어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3:30 헬로키티 신비한 자연견설 2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벅스북 15:50 빠샤 메카드S 16:20 모두 다 콩파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PD수첩(재)	12:00 SBS 12 뉴스 12:25 만화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행복실계 일찌배기 17:00 SBS 오 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김대창에게 이한철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술집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지구점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동백꽃 필 무렵 22:5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더 라이브 23:35 스포터 23: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살맛나는 남자들 22:00 동백꽃 필 무렵 22:35 동백꽃 필 무렵 23:10 생바이발 1+1 1부 23:50 생바이발 1+1 2부	18:25 중국의 아이들 스페셜 19:00 특성화고 학생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3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21:30 어쩌다 발견한 하루 22:05 제주MBC 시사전단 23:05 라디오스타	18:00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 22: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2:50 백종원의 골목식당 1부 23:30 백종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7:00 KCTV 뉴스 8:00 해라 양정집 9:30 인사이드 제주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40 KCTV 시청자 세상 14:30 해라 양정집 15:00 KCTV 15시 뉴스 16:10 양로크 KCTV 디큐 17:40 KCTV 세네하수 18:30 인사이드 제주 19:00 KCTV 뉴스7 20:10 글로벌 아카데미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3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원 교수(010-5233-6136)

36년 과다한 기대나 행동은 금물. 경쟁자가 생기고 질투의 대상이 된다. 48년 대인관계의 화합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라. 60년 문서 이사, 매매 등이 걸려있어 이익이 있다. 72년 모인 또는 음주에 신경쓸 것. 84년 격려와 충고를 진심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37년 긍정적 생각이 힘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라. 49년 문서관련 재운이 있으니 계약상사 때매 송사에 기쁨이 있다. 61년 자기 세력이 커지니 마음먹은 일은 자신을 갖고 추진하라. 73년 직장인은 화합을 유도하는 리더쉽이 필요. 85년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38년 생각이 많은 기쁜 소식이나 선약이 생긴다. 50년 활동성은 왕성해지나 자금이 지출됨이 따른다. 62년 동업자나 협조자가 있으나 의타심은 갖는 것은 해가 될 수 있다. 74년 승진의 기회가 오거나 좋은 위치로 움직일 수 있다. 86년 새로운에 도전하거나 변동을 원한다.

39년 해결되지 않던 일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풀려 나간다. 51년 일의 성과가 미약하거나 질투자의 등장으로 감정의 기록이 있다. 63년 부부간 다투면 힘들어지니 관용이 필요하고 먼저 화해. 75년 상대방과 경쟁시 미워하는 마음보다 선의에 경쟁을 하라. 87년 전문성을 갖거나 전문가로 거듭나자.

40년 노력한 만큼의 즐거움과 이익이 온다. 52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기니 문단속 철저. 64년 현재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욕심내면 다 잃는 경우가 온다. 76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오고 인정받는다. 88년 원하고 희망하는 취업이나 만남은 아니지만 이루어진다. 최선을 다하라.

41년 배신 또는 급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3년 내실을 기하는데 집중해야. 가정안에서는 부부간 의견차이로 불화. 65년 윗사람이나 부모님의 소식이 있으나 분주해지고 고민만 가득. 77년 사소한 시비나 언쟁이 확대되는 격으로 만사 조심. 89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어서 안풀면 굴이 깊어진다.

42년 동업자나 거래처에서 내게 도움을 청하면 오늘은 정중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 54년 신중함과 여유를 가져야 손해가 적으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6년 사소한 실수가 바닷물이 될 수 있다. 78년 재물은 이 가득하고 돕는 일이 있어 만사형통. 90년 독단적 행동은 자제하고 주변과 협동이 좋다.

43년 매출이 증가되나 일시적인 현상. 이익은 미약하다. 55년 급전지출 시비가 발생하니 돈거래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67년 직장인은 명예 또는 상사로 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가점수에 반영됨. 79년 여행이나 외출할 일이 생긴다. 이성교제 길. 91년 가벼운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보약.

44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영영하면 이익이 있다. 56년 재물이 있지만 투기는 신중해야 한다. 68년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불화하거나 이성간 애연 마찰로 헤어짐도 있다. 80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얻게되며 선배나 윗분의 칭찬이 많다. 92년 문서계약 매매거래가 길다. 과음주의.

45년 할 일이 아직 산재되어 있어 몸이 분주하다. 57년 계산상 착오가 생기거나 머뭇거리다 손해가 발생하니 기회를 잘 활용할 것. 69년 할 일이 늘어나나 몸이 따르지 않고 마음만 바쁘다. 81년 집안에서 결혼에 관한 문제가 오고 간다. 부모님과 상의도 필요. 9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조심.

46년 사회생활이나 가정적으로 변동의 근심수가 오니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갖자. 58년 남편 또는 경제적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 70년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거나 역할을 해야 한다. 82년 이성교제의 만남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으니 긍정적 화법이 필요. 94년 형제의 문제로 변동, 변화가 온다.

47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풀수 있는 기회가 나 에겐 행운. 59년 자금문제로 다름이 생기니 주의. 가정의 화목은 믿음과 배려에서 출발. 71년 자녀나 종업원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정교육이 우선. 83년 대인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 95년 오고 가는 정속에 믿음이 오거나 대화가 필요하다.